

### 3장 화목제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 혹은 ‘화평케 하는 제사’이다. 아침저녁으로 드린 번제와 소제와 달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한 번제와 달리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었다.

#### 1. 소의 화목제 (3:1-5)

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에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렸으나 암컷이나 수컷의 구분이 없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 후에 회막 문에서 잡으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여러 부위의 기름과 콩팥과 간을 번제물 위에서 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내장 부위의 기름은 힘이 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드렸고, 콩팥을 드리는 것은 마음의 깊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으로 점을 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물로 드렸다.

#### 2. 양의 화목제 (3:6-11)

양을 화목제로 드릴 때에도 소의 화목제와 같은 방식으로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 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었다.

#### 3. 염소의 화목제 (3:12-16a)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에도 동일하였다. 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이 제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고 향기로운 냄새였다.

#### 4. 금령 (3:16b-17)

모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름이 힘의 원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덧붙여 주셨다. 피는 제사장이 제단의 사면에 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피를 먹지 말도록 금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화목제가 지닌 속죄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

#### 묵상과 실천:

##### 화목제의 의미와 그 위치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과 교제하였다. 그 교제는 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름을 불로 살라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고대근동지역에서는 힘이 허리 근방의 기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과 콩팥, 간을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음식(應食)으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다. 그런데 함께 음식을 먹는 이야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속한 7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백성의 관점에서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속한 3장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강조되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백성에게 주셔서 먹도록 하신 사실을 강조한다.

#### 3장 익힘 문제

1. 제사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2. 화목제물의 피는 어디에 뿌리라고 하셨습니까? (2, 8, 13절)
3. 화목제에 대한 규례 중에서
  - 1) 무엇과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 2)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16절)